



「미 재무장관 “한국 정부, 대선 전 무역협상 해결 의지 강해”」에 대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4.30. 경향, 한겨레 등은 「미 재무장관 “한국 정부, 대선 전 무역협상 해결 의지 강해”」 제하 기사에서
 - 미 재무부 베센트 장관이 “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 “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”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한미 통상협의를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.
 - 그간 한미간 협의에서는 ‘July Package’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으며, “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”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.
 - 특히, 2+2 통상협에서 우리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,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- 정부는 “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한다”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소희	(044-215-76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혜	wp2428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	(044-203-5650)
		담당자	서기관	정지선	jisunjeong@korea.kr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